

#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 『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이선옥\*

## 차례

1.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
2. 1980년대 여성문학논쟁의 지식장 형성
3. 여성문학논쟁의 쟁점들
  - 3.1. 도식주의 대 이중체계론
  - 3.2. 박완서논쟁
  - 3.3. 집단창작(공동체적 읽기와 글쓰기)
4. 복합적 주제에 대한 인식으로 진전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발간된 무크지 『또하나의 문화』, 『여성』, 『여성운동과 문학』을 대상으로 여성문학논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경험적 주체의 재현과 복합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주제로 분석하였다. 여성을 단일한 범주로 호명할 때 늘 국가주의적 권력과 페미니즘이 얽혀 들어가는 위험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1980년대 여성문학논쟁이 고민해왔던 여성 주체와 문학적 재현의 문제는 여성, 민족, 계급의 복합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복합성에 대한 고민은 민족민중문학이 꿈꾸었던 단일한 주제에 대한 과잉상상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민족주의와 갈등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시기의 여성문학논쟁은 차이와 다성성의 지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 운동의 가부장성과 끊임없이 불화하고 전복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역할을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주체의 복합성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여성문학도 개인과 사생활의 발견이라는 공사이분법적 단절문에서 벗어나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주체의 복합성 개념은 집합적 주체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교차성의 개념으로 진전되는데, 시대마다 복합성 혹은 교차성의 지배적 요소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 민족, 인종, 섹슈얼리티, 성적지향성 등등 각 시대마다 새롭게 주체의 문학적 재현으로 구성되는 차이의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만으로도 한 시대의 삶의 변화나 인식적 경계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1980년대 여성문학, 여성문학, 페미니스트 무크, 여성, 또하나의 문화, 박완서

## 1.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

민족해방이라는 “더욱 고귀한” 투쟁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하여, 혁명기간 중 여성의 역할은 교육자, 간호사, 양육자, 어머니, 연락책으로, 베일 쓴 그리고 베일 벗은 자유투사로 계속 재구성되어 갔다. 이집트 페미니스트 나왈 엘-사다위(Nawal el-Saadawi)가 주장하듯이, 여성은 “혁명의 도구이자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투사로 이용당했다. 여성은 맨 처음 죽고 맨 마지막에 해방되었던 것이다.” ... 언제나 국토와 민족국가, 문화, 여성은 혼합되고 융합되었다. 문화와 정체성은 오직 여성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으로 상상되었고, 여성은 집단 정체성의 상징적 저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문화의 토대가 되는 ‘민족’과 ‘국가’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여성은 ‘서구’라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근대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성의 육체와도 같은 ‘국토’는 강간이나 서구 페미니즘 등 여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알레리 해방운동 이후 다시 베일을 쓰고 전통에 간혀야 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갈등이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을 재해석해야 하는 과제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민중문학의 패러다임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여성문학 역시도 그 하위 범주로 논의되던 시기이다.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면화되기보다는 아직은 거대한 광장의 열광 속에 함께 있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페미니즘문학이라는 용어가 문학비평용어로 정립되었으며, 여성문학논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이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정체성의 발견과 주체정립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운동권 여학생, 여성노동자, 중산층여성 등 광장의 민주화와 함께 공적 영역의 주체로서 정립해가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여성문학장으로 들어와 새로운 주체 재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상과 섹슈얼리티 재현에 중심을 둔 1990년대 여성주의문학의 성장 이후 이 시기의 여성문학에 대한 해석은 소홀해진 것도 사실이다. 민족이나 계급이라는 거대담론에 억눌린 여성문학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장은 사회운동의 퇴조와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이 바탕하고 있다. 모든 것이 사회와 역사로만 존재하던 시대를 지나 ‘개인과 일상의 발견’이라는 시대의식이 여성작가의 자기 발견의 서사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공사이분법적 단절론을 여성문학의 재해석을 통해 극복하려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양선의 연구<sup>2)</sup>는 1980년대 민족문학론의 자

1) T. 데니언 샤플리-화이팅, 김유경 역, 『과농의 페미니즘 의식과 알제리 여성해방: 식민주의, 민족주의, 근본주의』, 실천문학 2003 봄, 115~116쪽(T. Denean Sharpley-Whiting, "Colonialism, Nationalism, and Fundamentalism: Liberating Algeria", Frantz Fanon: Conflicts & Feminis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3장, pp.53~60).

2)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

기 동일성과 통합적 특성 때문에 여성문학의 성적 특수성이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이 시기에 대한 앞선 연구에 해당한다. 또한 여성문학을 이끌었던 지식인그룹의 차이 등을 밝히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혜령은 박완서문학의 중산층 여성의 중첩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학출여성노동자의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형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여성의 정체성이 계급, 세대, 교육정도, 사회적 의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sup>3)</sup> 김은하는 여성문학 무크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여성문학이 제도 밖에서 이루었던 투쟁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에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다. 평등한 시민권 획득이 페미니즘의 한 양상이었으며, 1980년대 진보적 여성 문학 운동 진영이 반정부성, 선명함, 치열함, 근본적 변혁 등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더 강조한 것은 여성을 ‘여성’으로 구성해온 국가 주도 근대화 과정에서 벗어나 저항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성평등한 공화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sup>4)</sup>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 김향숙 작품의 운동권 가족이야기에 주목한 손유경의 논문,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이 문학에서 작품화된 특성을 분석한 조연정의 논문이 눈에 띈다.<sup>5)</sup> 이 연구들은 1980년대 민중운동과 접합한 여성운동과 1990년대 여성주의문학의 대립적 사유가 사실은 젠더 이분법적 프레임에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6(1), 2005, 154~181쪽.

- 3)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47, 2016, 409~454쪽.
- 4)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2017, 39쪽.
- 5)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 상허학보45, 2015;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우리말글71, 2016; 김양선, 앞의 글; 안미영, 『1980년대 전반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의의와 한계』, 비평문학 58, 2015; 이소희, 『일반논문 :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0, 2013;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28, 2012 등의 논문에서도 80년대 여성문학의 운동성, 지식구성의 배경, 민중문학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간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절론임을 실제 작품들의 복합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시기 여성문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 글 역시도 여성문학 계보의 연속성을 고민하면서 이 시기 여성문학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 계급, 젠더에 대한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이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의 복합적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사유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이러한 복합성에 대한 사유가 1990년대 여성주의문학의 인식론적 배경으로 연결되었다는 점도 단절론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집합적 여성'(collective-subjectivity) 개념에서 최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sup>6)</sup>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까지 페미니즘이 지속적으로 탐색해온 주제는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여성이라는 범주의 연대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최근 페미니즘 이론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교차성 개념은 여성 정체성의 sex/gender 혹은 gender/sex를 모두 구성된 범주가 아니라 구성하는 범주(constructing categories)로 이해하면서 젠더/섹스가 접합해내는 정체성의 복잡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교차성 패러다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교차적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가부장제(젠더)와 자본주의(계급)를 서로 구별되는 지배체제로 보면서 그 둘 사이의 결합에서 중요성의 경중을 따졌던 전 시기 페미니즘과는 달리 복합성을 좀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젠더, 계급, 인종뿐 아니라 연령, 섹슈얼리티 등등의 다양한 상호구성하는 체계들의 맥락 속에 해당 집단의 삶을 구조 짓는 억압적 현실을 교차적 현실 그 자체로서

6) 교차성 개념은 킴벌리 크렌쇼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 페미니즘의 젠더 단일주의에서 벗어나 젠더가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국적과 같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교차 개념과 다중적 정체성의 핵심 개념이다. 한국여성연구소, 『젠더와 사회』, 도서출판동녘, 2014, 86~87쪽.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교차성 개념 역시도 모호성 때문에 적용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축으로 여성운동이 진행되어왔던 역사와 그 겹침이 여전히 중요한 여성문제의 핵심과제라고 보는 관점도 진행 중이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들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차이들이 교차하는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라는 점이다.

국가주의로 편입되어 갔던 수많은 여성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성’이란 호명이 보편적 범주가 되는 순간 그 역시도 권력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sup>9)</sup> 수많은 차이를 가로지르는 집합적 여성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그러한 연대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여성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의 출발점을 민족민중문학과 여성문학의 갈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복합적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1980년대가 젠더, 계급, 민족의 복합성을 고민했다면, 1990년대는 젠더, 섹슈얼리티, 서발턴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도미넌트가 되는 요소들은 달라지지만 젠더를 중심으로 단일성에 대한 상상에 저항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교차해 가는가를 탐색해왔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대상은 1980년대 발간된 무크지 『또하나의 문화』, 『여성』, 『여성운동과 문학』을 대상으로 삼았다.

7) 배은경의 논문에서는 흑인 여성문제를 교차성 개념으로 설명한 패트리샤 힐 콜린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도 교차성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32-1호 2016, 9~11쪽.

8) 케빈 울슨 외, 이현재 역,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1~556쪽; 이 책에서는 낸시 프레이저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적 관점과 주디스 버틀러 탈구성주의적 페미니즘 관점이 펼쳐는 논쟁이 실려 있다. 여성 정체성 논쟁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글이다.

9) 여성의 단일한 호명과 국가주의에 대해서는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김재용 외, 역락, 2002, 266~268쪽.

## 2. 1980년대 여성문학논쟁의 지식장 형성

여성문학(Feminist Literature)은 여성(Female)이 쓰는 문학, 여성(Feminine)의 차이의 문학, 여성해방(Feminist)문학 이 세 갈래의 입장에서 출발했다.<sup>10)</sup> 이 관점들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소통하면서, 여성문학의 창작과 비평을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여성문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다. ‘여성주의문학’과 ‘여성해방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개되었는데, 여성주의문학은 여성의 신체, 경험의 차이가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이러한 차이가 남성의 글쓰기와는 다른 독자적인 여성미학을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주의 미학이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밝히려 노력해왔다면, 여성해방문학은 여성문제를 역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읽어내는데 중점을 둔다. 여성적 글쓰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호명이 불러내는 담론의 정치적 역학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전문적인 여성문학연구자의 단체가 설립되고 여성문학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들어서이다.<sup>11)</sup> 1984년 12월 또하나의 문화가 설립되어 이듬해 잡지 『또하나의 문화』가 창간(1985.2)되었으며, 여성사연구회는 잡지 『여성』을 발간(1985.11 창작과비평사, 1~3호가 1980년대에 출간되었고, 3호 이후 『여성과 사회』로 명칭 변경)하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에서 발간한 『여성운동과 문학』1,2(1호는 실천문학사, 1988, 2호는 풀빛, 1990 발간)도 이 시기에 발간된 여성문학

10) 『(좌담)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또하나의 문화』 3호, 1987, 15쪽.

11) 이 시기 학술운동과 인문사회과학잡지의 등장과 변화에 대해서는 정민우가 표로 정리하였는데, 잡지 『여성』에 대해서는 아현연구실(1980)과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1984)가 여성사연구회로 합쳐졌음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이 시기 다양한 학술운동단체와 잡지, 그리고 학술단체협의회(1988)의 결성 등에 대한 소개가 정리되어 있다. 정민우, 『지식장의 구조변동과 대학원생의 계보학, 1980~2012』, 문화와사회15, 2013, 19쪽.

무크지였다. 이와 함께 여성작가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여성작가의 시대라 할 만큼 성과가 두드러졌다. 우선 소설만 보더라도, 중산층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룬 박완서, 이경자, 오정희 등에서 출발하여, 김인숙, 김향숙, 공지영 등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운동권여자대학생들의 자기정립 과정을 다룬 소설 등이 등장했다. 하층민의 삶을 다룬 양귀자, 양공주 이야기를 다룬 윤정모, 그 외에 강석경, 김채원, 서영은 등도 이 시기 여성의 삶과 갈등을 다룬 작품들을 쓴 대표적 작가들이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주체정립과정을 다룬 소설들로 여성문학이 거대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여성문학논쟁의 지식장<sup>12)</sup>이 형성되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페미니즘 이론서적들의 번역 그리고 인간화 운동과 운동의 중간그룹 형성을 위한 교육화사업 등을 이끌었던 크리스찬아카데미 중심의 여성운동가 그룹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운동, 호주제 철폐 등의 시민권운동이 진행되었다.<sup>13)</sup> 그 한편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이를 지지 연대하는 여성지식인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세계 여성의 해’가 1975년에 선포되었고, 여성 관련 저서의 번역과 출판도 급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몬느 보봐르의 『제2의 성』(조홍식 역, 을유문화사, 1974),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정의숙·조정호 역, 현대사상사, 1976),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김행숙 역, 평민사, 1978)가 번역되었고, 이효재의 『여성과 사회』(정우사, 1979),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창작과 비평사,

12) 지식생산과 소비, 유통과정이 이루어지는 상징공간으로서의 지식장의 구조 변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교육과 비제도권의 학술운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추후 연구 작업으로 남기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이 시기의 여성해방론을 구성한 독서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여성해방론에 대한 번역물들과 연구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 논의의 갈래들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13)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25(4), 2009, 149~151쪽.



1979) 등의 연구서가 잇달아 출간되었다. 하지만 성평등을 지향하는 일련의 변화와는 달리 여전히 관습이나 규범의 벽들이 높았고, 그 때문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닫혀 있는 삶에 대한 거부와 좌절이 유독 두드러진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작가들이 상업소설 창작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남성중심의 영역이었던 문학제도와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계속해 왔던 작가들로는 구혜영, 김의정, 김영희, 김진옥, 박경리, 박기원, 박순녀, 손장순, 송원희, 안영, 오지영, 윤금숙, 윤남경, 이규희, 이석봉, 이정호, 전병순, 정연희, 최미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여성문학에서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박완서, 오정희, 서영은, 강석경, 김채원 등이 그들이다. 새롭게 등장한 이 작가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집안을 지키며 전쟁을 헤쳐나온 억척어멈들의 딸이며, 고도성장기의 변화 속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한 제1세대이다.

이 시기에 번역 소개되기 시작한 여성운동이론서들은 1980년대 여성운동의 지적 배경을 이루게 되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파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이론서들과 다시 새로운 지식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여성이론 관련 번역물들은 1978년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에 개설된 여성학강좌와 이후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등 대학에 개설된 여성학강좌를 중심으로 교재로 사용된 이론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가렛 미드의 『남성과 여성』(이경식역, 범조사, 1980), 줄리엣 미첼의 『여성해방의 논리(여성의 지위)』(이형량·김상희 역, 광민사, 1981), 로버타 해밀턴의 『여성해방논쟁』(최민지역, 풀빛, 1982), 앨리슨 재거의 『여성해방의 이론체계』(신인령 역, 풀빛, 1983), 슬라미드 화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김예숙 역, 풀빛, 1983),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선병렬 역, 한밭, 1982) 등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소개와 다나카 미치코의 『미혼의 당신에게』(김희은 역, 백산서당, 1983),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홍수원역, 우아당, 1982)<sup>14</sup> 등 여성의 심리를 다룬 교양서 등이 이 시기 독서리스트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교양교육 리스트와 다르게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번역하고 있는 이론서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중심이 되었다. 일리 자레스키의 『자본주의와 가족제도』(김정희역, 한마당, 1983),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김대웅 역, 아침, 1985), 클로디 블로이엘의 『하늘의 절반: 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김주영 역, 동녘, 1985),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붉은 사랑』(김제현 역, 공동체, 1988) 등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대표적 저작을 번역 소개하였다. 그 외에 편역된 책들이 있는데 여성평우회 편 의 『제3세계 여성노동』(창작과비평사, 1985), 김지해 편 의 『세계여성운동1: 사회주의 여성운동』(동녘, 1987), 『세계여성운동2: 민족해방운동』(동녘, 1988), 토나 외 편 의 『클라라 체트킨 선집』(조금안 역, 동녘, 1987), 마르크스 외 『여성해방론』(조금안 역, 옹녘, 1988), 하이디 하트만 외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김혜경·김애령 역, 태암, 1989), 레닌 『레닌의 청년 여성론』(편집부 편역, 함성, 1989)<sup>14)</sup>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편역이다. 당시의 엄격한 검열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은 원전이 번역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 했다. 일본어나 영어로 된 번역서가 지식인 학습그룹들 사이에서 전파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출판이 자유로워진 1980년대 후반에 운동적 필요성에 맞추어 편역본들이 많이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도 편역의 형태로 여성운동의 지식장으로 전파되었고 문학비평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식민주의의 이론적 대안으로 마르크스주의 계급해방론이나 민족해방론이

14) 허윤, 앞의 글, 243~245쪽.

15) 허윤, 앞의 글, 250~151쪽에서 번역본 리스트를 참고하였다.

16) 김동식은 1980년대 이념도서 단행본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지배권력과 대항권력, 억압과 저항이 맞부딪치는 경계선의 미디어였다고 설명하고, 특히 1985년 광장서적 압수수색과 이념도서과동을 이 시기 출판 상황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사건으로 꼽는다. 김동식, 『잡지의 시대, 매체의 시대, 문학의 시대-1980년대 문학과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대신하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 233~234쪽; 1980년대 매체 환경, 문예지, 무크지, 동인지에 대한 설명은 236쪽 참조.

받아들여졌고, 여성해방론도 그러한 이념적 흐름과 소통하면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번역 소개된 이론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점차 여성해방론의 이론적 갈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갈래를 짓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여성지식인 그룹이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 3. 여성문학논쟁의 쟁점들

『또하나의문화』1~6호, 『여성』1~3호, 『여성운동과 문학』1~2호를 대상으로 여성문학논쟁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 『여성』과 『여성운동과 문학』의 글은 같은 그룹의 필자들의 글로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볼 수 있어서 이후 논의에서는 ‘또문’그룹과 ‘여성’그룹으로 지칭하여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의 계급적, 가부장적 억압과 여성문학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도식주의와 이중체계론으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비평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박완서논쟁을 두 번째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두 그룹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는 공동체적 글쓰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하나의문화』의 지향점은 기존의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창간호(1985.2) 좌담에서 밝히고 있다.

『또하나의 문화』는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적 문화를 만들고 이를 실천해 가는 동인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특히 하나의 대안 문화를 사회에 심음으로써 유연한 사회체계를 향한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13쪽)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보수적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

안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생활문화운동을 표방하고 있어서 잡지의 내용에서도 교육문화운동이나 주부의 생활문화운동, 문화비평, 문학비평, 새로운 문화쓰기 등의 생활과 연결된 실천적 내용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면서도(농촌여성, 노동여성 등의 글 등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있음) 자연스럽게 중산층 주부의 생활문화운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관점에서든 인간해방의 문학이면서 여성의 가부장적 억압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고발하고 재해석하며,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문화적 실천의 관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해방의 문학』(또하나의문화3호, 1987)에 실린 「편집자의 말」을 예로 들어 보자.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실존적 해방에 관여한다. 여성해방의 문학은 그러한 인간해방문학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성해방문학은 인간해방의 관점에 대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인간학적 계기와 과제를 가진다. 우리가 표제로 내세운 ‘여성해방문학’의 기초는 여성들이 겪어온 심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역사적 억압 경험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에서 출발한다. 여성해방문학은 동서를 막론한 가부장적 사회체제가 지배와 경쟁, 약탈과 소유를 일삼는 한편 그 희생의 첫 번째 그리고 어찌면 마지막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 공동의 인식기반을 갖는다. 이 공동인식기반을 전제로 여성문학은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 대개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고발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 「편집자의 말」에서는 여성문학을 고발/비판적 재해석/해방의 비전 제시 3단계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학비평이라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고발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을 다시보기하면서 새로운 해방의 비전을 보여주는 문학이라는 것이

다. 이 글을 보면, 초기 또한 그룹이 여성해방문학을 문화실천운동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의 특집 제호를 보아도 문화실천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을 보여주는데, 1980년대 발간된 제호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1985)/2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1986)/3호 여성해방의 문학(1987)/4호 지배문화 남성문화(1988)/5호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1989)/ 6호 주부 그 막힘과 트임(1990)이 등이다. 교육문제로 시작해서 여성 주체의 자율성 문제를 다루고 문학과 문화, 중산층 주부의 생활과 대안 문화 창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비해 『여성』창간호(1985.11 창작과비평사)에서는 여성이 외세에의 종속과 분단,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모순과 여성으로서의 성적 억압이라는 이중적인 억압 속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사회변혁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실천보다는 사회경제적 변혁을 명확한 지향점으로 보여준다.

해방 이후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가장 심화된 형태로 겪어야 했다. 이는 여성들이 이중적인 억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외세에의 종속과 분단,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의 지배라는 모순 속에 여성으로서의 성적 억압이 결합되어 우리 여성들을 가장 참담한 삶의 고통 속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억압은 여성이 우리 사회의 모든 억압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장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2쪽)

이러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은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와 사회전체의 불평등구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인간해방을 위한 “총체적 이념을 정립”(3쪽)해나가야 한다는 선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억압’과 ‘총체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 두 용어가 계급적 억압과 성적 억압이 결

합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형태로 여성의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며, 따라서 이 이중의 억압 즉 이중의 노동력 착취를 해결해야만 근본적 사회변혁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성해방문학에서 주장되었던 ‘기층여성의 시각’이 계급과 성의 기계적 접합이 아니냐는 지적은 여성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의 소홀함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지만 여성문제가 성과 계급, 민족의 문제가 착종된 문제이며, 여성문학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총체적 시각을 담보해내는 의의가 있다는 주장의 정당성만큼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학론도 여성이 처한 현실적 기반 위에서 있을 때에만 구체적인 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한국의 현실에 있어 여성은 삼중의 억압 하에 살고 있는 바, 성적·계급적·민족적 억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셋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순 구조 속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여성문학은 기존의 진보적 문학논의에서 보였던 일면적 문제의식을 극복하고 총체적 전망을 부여함으로써 문학논의 자체를 한 단계 고양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sup>17)</sup>

중산층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개량주의적이라고 분석하고 기층여성 중심의 민중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층여성들은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에서 이중으로 억압받고 있는 완전한 무소유자이기 때문에<sup>18)</sup> 이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중여성이라는 범주에 중간계층 여성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지만 지배권력과의 관계에 놓인 위치에 따라 기회주의적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흔들리는 계층으로 보고 있다.

17) 김영혜 외,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운동과 문학』 1집, 1988, 289~291쪽.

18) 심정인,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1, 246~247쪽.

중산층 여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두 집단의 중요한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 작품분석에서 박완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된다.

### 3.1. 도식주의 대 이중체계론

조은은 『『여성』이 제시하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은』(『또문』2호, 1986)에서 『여성』에 발표된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여성』1)과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여성』1)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문제의 본질을 여성의 노동력 착취로 보고 경제체제의 변혁을 통한 해결을 여성해방론의 전망으로 보고 있는 이 글의 관점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것이다. 무크지가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잡지로 뿌리내리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가장 올바른 과학적 이론이라는 주장보다는 하나의 비판적 관점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문학에 대한 글에 대해서도 남성작가들의 작품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시도 역시도 지나친 도식화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문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여성해방론적 시각 못지않게 여성들의 삶이 비인간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문학적 감동을 수반한 사실성에 기반해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19)</sup> 이 글의 주장은 『또하나의 문화』에 나타나는 『여성』그룹의 비평을 비판하는 기본 논조를 보여준다.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은 남성 작가 작품에 대한 여성이 미지비평에 해당하는 글이다. 최인훈의 『광장』, 이문열의 『영웅시대』, 조해일 『겨울여자』, 김승옥 『야행』, 천승세 『황구의 비명』, 조해일 『아메리카』, 황석영 『물개월의 새』를 대상으로 여성인물들이 자기 욕망이 없는 대상화된 인물임을 비판하고 있다. 성적 대상이거나 인식처로 바라보고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부장적 이데올로

19) 『창작과 비평』 2호, 398~443쪽.

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력 착취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51쪽)이다. 작품들을 보면 민족문학에서 손꼽는 작품들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베스트셀러까지 1970년대 대표적인 남성작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식적이고 대상 선정도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문학사 다시쓰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여성해방비평의 출발을 알린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에는 『여성문학의 흐름과 쟁점』(『여성운동과문학』2, 1990)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집단 모두 ‘성과 계급’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그룹은 남녀차별이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과 계급억압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자본축적을 위해 모든 차이를 차별화하여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전통적 성별분업 및 남녀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개편, 강화하여 여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민족분단과 계급갈등으로 모순이 첨예화되어 가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성적 억압까지 중첩된 삼중고 속에 위치한 기층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여성을 규정하는 두 범주인 성차별과 계급억압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276쪽)

『여성』그룹의 관점에서 있는 글이어서 『또하나의 문화』그룹에 대한 비판은 좀더 선명하다.

지금까지 여성을 억압해온 남성 지배문화의 폭력구조에 대해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그 모든 억압의 근원이었던 ‘남성적’인 이원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



안 남성 지배문화에 의해 주변화되고 가치절하된 ‘여성성’의 적극적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모든 억압과 갈등을 포용하여 해소시키는 무한성으로 상징된 어머니 형상이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의 경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정희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동행’의 의미,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강, 물 등의 이미지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277쪽)

그러나 문제는 여성을 바라보는 두 범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어떻게 해체한다는 말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여성성의 적극적 개발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은 성과 계급의 문제에서 계급의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한다. 현대사회의 억압을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억압으로 설명하면서도 실제 문화비평에서는 자본주의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로서의 여성범주를 설정하는 부분도 모호한데, 여성들간의 계급차가 남성들간의 계급차보다 심하지 않다는 비과학적인 계산으로 여성의 동질성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78쪽) 이러한 비판은 이른바 SF(Socialist Feminism)의 이중체계론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남녀차별의 문제를 자본주의 세계체제 규정에서 찾지 않고 가부장제라는 또다른 모순구조를 설정하여 남성지배문화에 대한 투쟁을 우선시 하는 이른바 SF(Socialist Feminism)적 편향을 지닌 입장들이 현재 여성운동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폐기되었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분야에서는 갈수록 뚜렷한 목소리로 가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75쪽)

도식주의와 이중체계론으로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지만 실제 작품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 텍스트비평의 방법론에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억압현실에 대한 고발을 강조하는 경우이거나 자본주의적 억압현

실을 좀더 강조하는 경우이거나 모두 리얼리즘적 관점이론이기 때문에 문학을 비평하는 여성문학비평의 방법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리얼리즘의 관점이론과 여성성의 특징을 글쓰기의 특징으로 연결한 텍스트비평이론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실례가 박완서논쟁이라 볼 수 있다.

### 3.2. 박완서논쟁

『여성해방의 문학』(『또문』3집, 1987)은 좌담 「페미니즘문학과 여성운동」을 책 전면에 배치하고 박완서, 고정희, 조혜정, 조형, 조옥라 등등의 여성문학과 여성운동의 대표적 인물들이 여성문학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어서 이 시기 여성문학의 상징적인 현상으로 읽힌다. 그 내용도 좀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편집자의 말」과 조혜정의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를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를 보기로 하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해방의 문학』 편집자의 말에는 여성문학비평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여성해방문학이란 “여성들이 겪어 온 심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역사적 억압 경험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다루는 문학으로 “고발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로 성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의 박완서문학 비평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혜정은 남녀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여성문화 창조의 면에서 문학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여성문학 작품 등을 분석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첫째, 여성문학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여성을 온전한 사회적 성원으로 보고 있는지 이다. 둘째는 여성의 역사적 경험 즉 억압받는 자로서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자녀양육 능력, 타인과의 제휴 능력 및 사려 깊음 등 ‘진정한 여성성을 발견’하고 ‘자매애’를 통한 여성문화 창조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33~34쪽) 이런 기준

하에서 분석했을 때 이순의 가족주의적 한계, 오정희의 지나친 허무주의, 윤정모의 남성애에 대한 관대함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박완서의 작품이 철저한 리얼리즘으로 평가되었다.

박완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상처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고발해 왔다. 특히 남성 우월의식과 이중가치, 주부의 반복적 일상생활, 남아선호가 낳은 가슴앓이, 성적 폭행,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여성과 가부장적 환경간의 치열한 투쟁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문학의 싹을 키워 왔다.(41쪽)<sup>20)</sup>

아직 온전히 선 여성이 없는 이유는 작가의 철저한 리얼리즘 정신 때문이며, 『해산바가지』에서 보여주는 시어머니의 엄숙한 해산준비와 살뜰한 바라지는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성성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품으로 평가한다.

『여성』이 중요하게 분석한 여성작가도 박완서와 박경리이다. 박경리의 『토지』를 분석한 김성희·성은애·이명호의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여성』3, 1989)도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제기를 던지지만 논쟁을 이해하는데 눈여겨 볼 글은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시리즈의 두 번째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이 쓴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여성』2, 1988)이다.

이 글은 『여성해방의 문학』(또문3집, 1987)에 대한 미흡함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여성해방문학이란 민족민중문학과 맥을 같이하면서 여성억압적 측면을 문학작품이 사회 전체의 모순구조 속에서 제대로 포착해내었는가를 따지고 그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202쪽)이라는 관점을 먼저 밝히고 있다. 그에 비해 또문 그룹의 관점은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의 인식이 여성해방문학의 공동 인식기반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여성문제를

20) 대상작품은 님은 방들/그 가을의 사흘 동안/휘청거리는 오후/살아 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해산바가지/꽃을 찾아서 등

계층적 차별성이 없는 보편성의 문제로 보아 역사·사회·계급적 특수성은 간과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203쪽)

이러한 관점 하에서 박완서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데, 왜 박완서인가에 대해서는 민족민중문학적 성과와 여성문제에 대한 작품화 노력 모두를 보여주는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박완서의 『나목』과 『휘청거리는 오후』 등의 작품에 대해서도 여성문학적 시각의 평가가 거의 없으며, 『살아있는 날의 시작』이나 『서 있는 여자』 등의 여성문제 소설은 논의가 전무하기 때문에 여성문학적 시각을 통한 작품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작품은 『나목』과 『목마른 계절』이 보여주는 6.25 체험과 분단 상황에 대한 박완서의 체험 재현의 방식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중산층 소시민이 된 인물들의 소시민성, 속물성에 대한 환멸에 주목해서 “분단현실과 소시민적 자세의 상관관계를 포착”(208쪽)해 준다는 점에서 고평하고 있다. 또한 『휘청거리는 오후』와 같은 중산층 삶의 방식에 대한 폭로 및 비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성문제 소설이나 분단소설 등도 역사·사회적 모순에 대한 구조적 통찰로 나아가지는 않아서, 이 시기 박완서의 현실은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235쪽)고 아쉬움을 남긴다.

두 집단의 박완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조혜정이 주목하는 작품들과 다른 관점의 작품들을 주목하고 있어서 이 두 집단의 관점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룹의 관점은 중산층 여성을 다룬 박완서 작품의 가부장적 현실의 고발에 주목하고 있고, 여성 그룹은 전쟁 체험과 이후 중산층적 삶의 속물성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박완서 연구는 여성적 기억의 방식이나 집합적 기억에 대한 논의들, 중산층 형성과 외부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들로 발전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적 재현에서 집합적 기억 혹은 여성적 주체 복합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비평에서는 박완서 문학의 복합성에 대해 착목은 하였지만 이를 해석할 방법론이 뚜렷하지 못했던 점은

두 집단 모두의 고민이자 한계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단일성 통일성에 대한 과잉 상상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에 틈새를 내고 복합성을 탐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문학연구자들의 성과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3.3. 집단창작(공동체적 읽기와 글쓰기)

경험의 교차와 글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 시기 작업의 특성은 집단창작이다. 특히하게도 이 두 잡지의 글들은 여러 필자가 공동집필한 글들이 많다. 이것은 또문 그룹도 여성 그룹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을 취한다. 집단창작의 방식은 두 집단의 논쟁보다는 공통점에 해당하는데, 두 집단 모두 여성 주체의 복합성을 드러내고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공동체적 읽기와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는데, 이 시기 또문 그룹과 여성 그룹이 시도했던 집단창작의 방식이 초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하나의 문화』에서도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의미부여는 『여성』그룹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검토·비판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평단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선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어떤 개인이 나와주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번 공동작업이 구상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여성독자로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 느끼던 불만과 의혹, 바램 등을 정리해보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문제를 제기하고 작품을 선정·분석하여 문장 하나하나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엔 어려움이 많았다. 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공동의 토의와 상호 비판·격려가 없었던들 이만한 성과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개인작업이 가지기 어려운 광범한 문제제기, 다각

도의 문제규명의 노력도 공동작업을 통해 행해질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 글이 이루어진 과정이 그랬듯이 이 글의 장점과 단점, 성과와 한계 또한 공동작업이자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인 우리가 함께 감당할 것이다.(필자 일동)<sup>21)</sup>

앞으로 좀더 연구를 보충해야 하겠지만 공동체적 글쓰기는 경험과 관점이 서로 횡단하고 교차하는 여성주의 방식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개인작업이 가지기 어려운 광범한 문제제기, 다각도의 문제규명의 노력도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지식습득, 전수의 과정과는 달리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체험을 기술하는 구술사의 경우도 서발턴의 말걸기의 어려움을 발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공동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시작된 공동 집필 방식도 경험을 껍치고, 말하기 어려움을 뚫어내는 한 글쓰기 전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창작된 노동수기나 르포르타주 등이 개인창작이라기보다는 집단창작의 산물로 의식화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던 반면 기성 평단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여성비평가 그룹의 공동체적 읽기-쓰기 방식은 그러한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수기와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동자 수기를 분석한 배하은의 연구는 이를 분석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가 보여주는 실패의 서사, 그리고 비통한 정조는 수기의 읽고-쓰기를 통해서 감성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성적 연대이기 때문에 개별 주체들을 집단이 내세우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으로 동화시키거나, 그 주체들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석한다.<sup>22)</sup> 비평 역시도 여성노동자 수기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고

21)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1, 창작과비평사, 1985, 6쪽.

22) 여성 노동자들의 장편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투쟁 실패담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배하은은 노동자들의 연대가능성을 비통한 감정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졌

판단되는데, 공동체적인 쓰기와 읽기를 통해 지식의 공유보다 더 큰 감정의 교류, 억울함과 비통함의 정조를 공유할 수 있는 감성적 연대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지식인 그룹의 경우 고립된 개인적 작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푸코의 분석처럼 신지식을 통한 지식권력의 전파와 맞물려 있어서 공동체적 정서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비평가 그룹의 읽기-쓰기 방식은 감성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면서 단일한 정체성을 호명하는 방식들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4. 복합적 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진전

이 시기 두 여성문학비평 그룹의 논쟁을 통해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보다는 이 시기는 여성의 사회적 주체정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경험적 주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문학장으로 발화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여성문학의 지향점에서는 사회의 문화적 변혁과 정치경제체제의 변혁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성적 경험에 바탕하고 이를 침묵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여성문학논쟁과 관련된 중요한 번역서로는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문예출판사, 1988), 한국여성연구회편역, 『여성해방문학의

---

음을 지적한다. 노동자 수기에서 말하는 이 감성적 연대는 개별 주체들을 집단이 내세우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으로 동화시키거나, 그 주체들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대 운동론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계급적 이념과 정체성에 의한 연대와는 다른 차원에 정초해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198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는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각과 정서, 삶을 글로 표현하고 다시 그것을 읽는 읽기-쓰기의 과정 가운데 감성적 연대를 수행하는 문학적 실천이자, 그것을 길어 올리는 글쓰기 양식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논문, 2017, 164~166쪽.

논리』(창작과 비평사, 1990) 두 권의 책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출판년도는 1980년대 말이지만 역자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 문학논쟁을 이끌어온 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이 시기 여성문학론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페미니즘과 문학』에는 일레인 쇼왈터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조나단 컬러 「여성으로서의 독해」, 줄리아 크리스테바 「정신분석과 폴리스」, 주디스 키건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등의 텍스트비평 이론들이 번역되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여성문학비평을 공부하는 이론 연구자들의 실제비평 방법론으로 번역 소개되었으며, 형식주의비평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여성해방문학의 논리』는 주디스 뉴튼·테보라 로젠펠트,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을 향하여」, 코라 카플란 「판도라의 상자-사회주의적 여성해방비평에서의 계급과 성, 주체성의 문제」, 미셸 바레뜨 「이데올로기와 성의 문화적 생산」, 앤 로잘린드 존즈 「몸으로 글쓰기-여성적 글쓰기의 이해를 위하여」 등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비평을 소개하고 그 관점에서 여성주의비평을 어떻게 수용하고 비판하는가에 대한 글들을 번역소개하고 있다. 무크지 『여성』을 이끌었던 비평가그룹의 이론적 배경과 고민을 볼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편자 서문에 그러한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흥미롭다.

우리의 문학계에 이른바 ‘여성해방문학론’ 혹은 ‘여성해방비평’이라 이름할 수 있는 논의가 등장한 것은 80년대 중반이었다. ‘여성해방문학론’의 주창자들은 문학작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여성의 현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작가의 세계관 속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올바르게 자리잡고 있는냐를 보아야 한다는, 지금까지는 거의 무시되어왔던 작품분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여성해방문학론’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아직 탄탄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여성문제를 남/녀 대립의 고립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역사적·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한다고 할 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문제



등이 여성문제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또 여성 문제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서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이를 문학작품의 분석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또한 기왕의 진보적 문학논의와 여성해방문학론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등등.<sup>23)</sup>

이 글에서는 여성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 여성해방문학론도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고, 『여성』과 『또하나의 문화』의 관점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4)</sup> 이 글에서 강조하는 이론은 유물론적 여성해방비평인데 “여성 사이의 인종, 계급, 그리고 역사적 조건의 실제적 차이들을 간과한 채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보편적인 범주를 통해 여성들을 자매애적인 유대 관계로 포섭하거나, 양육자로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꾸러내는 자로서의 여성들의 특성을 그 자체로서 남성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영미의 문화적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이나 많은 프랑스 여성해방론자들의 본질주의적·관념적 경향을 비판”<sup>25)</sup> 하는 논의들로 진전되어 간다. 1980년대의 논쟁에서 담론 투쟁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후의 논쟁들은 여성적 글쓰기의 여성 신체의 기입과의 논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신체(body)와 여성의 차이(difference)의 기입(inscription)인 <여성의 글쓰기(ecriture feminine)> 개념은 헬렌 씨수의 개념이 이론의 중심이다.(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쿠스, 루스 이리가라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억압된(repression) 성심리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남성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중심담론에서는 아예 없거나 잘못 그려진 여성의 자기인식과 표현에 맞서 여성의 신체와 성적 쾌감, 남성과 대비되는

23) 릴리안 로빈슨 외, 한국여성연구소 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3~4쪽.

24) 이순예(『여성운동과문학』 2)의 글을 참고하라고 밝혀 놓고 있다.

25) 릴리안 로빈슨 외, 앞의 책, 7쪽.

다중적이고 확산되는 여성 특유의 리비도 충동, 몸짓, 성적 쾌감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정한 자기의식을 새롭게 표현해 내는 글쓰기이다.”<sup>26)</sup>

여성적 글쓰기는 『또하나의 문화』9호(1992)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가 제호로 내걸고 있어서 흥미롭다. 여전히 또문 그룹은 경험적 글쓰기나 공동체적 문화운동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헬렌 씨쭈의 『메두사의 웃음』에 대한 글을 싣고 있으며, 구술사,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글들을 담은 책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의 또문 그룹이 여성적 글쓰기의 흐름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문 그룹의 ‘몸으로 글쓰기’는 여전히 경험적 주체의 문화적 특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젠더에 대한 구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질주의로 환원되는 관점과는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문 그룹이 젠더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좀더 나아가고 있다면 여성 그룹은 복합성과 교차성에 대한 해석에 좀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을 보편적 범주로 환원하는 비평적 경향에 직면하면서 젠더적 특성과 접합되는 다양한 교차적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전복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시기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단일한 호명의 본질주의적 위험성을 견지하면서, 사회변혁 운동으로서의 문학운동을 견지해나간 1980년대 여성문학비평 두 그룹을 살펴보았다.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두 그룹은 경험적 주체로서 여성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고, 주체의 복합성을 교차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연대가 가능한가를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젠더의 역사적 문화적 구성에 좀더 초점을 두었던 또문 그룹과 젠더와 민족, 계급 범주의 복합성과 교차의 해석에 좀더 집중한 여성 그룹은 1980년대 여성문학비평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논쟁 역시도 이 두 그룹의 차이보다는 서로의 역동적인 소통의 과정으로

26) 태혜숙, 『현대영미여성해방비평연구: 영문학비평의 객관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사  
논문, 1992, 42쪽.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민족주의가 상상하는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과잉 해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젠더, 계급, 민족 어느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흔들리는 주체에 대한 이해이고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에 대한 전복적 가능성을 이 시기 여성문학비평이 이루어왔음을 볼 수 있다. 두 그룹의 논쟁 혹은 공감함을 통해 여성문학비평이 좀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진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여성작가들의 작품들도 다양한 스펙트럼과도 영향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또하나의 문화』(또하나의문화출판사, 1985.2 창간~2003 17호 이후 중간 상태)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 『여성운동과 문학』1, 2(1호는 실천 문학사, 1988, 2호는 풀빛, 1990 발간)  
 『여성』(창작과비평사, 1985.11 창간, 1988 2호, 1989 3호 발간 이후 『여성과 사회』로 명칭 변경, 1990~2005 총 16호 발간)

### 2. 단행본

- 김열규 외,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1~384쪽.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김재용 외, 역락, 2002, 266~268쪽.  
 한국여성연구소, 『젠더와 사회』, 동녘, 2014, 86~87쪽.  
 릴리안 로빈슨 외, 한국여성연구소 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3~7쪽.  
 케빈 올슨 외, 이현재 역,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1~556쪽.

### 3. 논문

- 김문주,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 한국근대문학연구30, 2014, 323~356쪽.
- \_\_\_\_\_,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37, 2013, 83~104쪽.
-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6(1), 2005, 154~181쪽.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51, 2017, 15~49쪽.
-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25(4), 2009, 149~151쪽.
-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32(1), 2016, 1~45쪽.
-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논문, 2017, 164~166쪽.
-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 한국문학연구46, 2014., 283~311쪽.
-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상허학보45, 2015, 117~159쪽.
- 송도영, 『1980년대 한국 문화운동과 민족·민중적 문화양식의 탐색』, 비교문화연구4, 1998, 153~180쪽.
- 안미영, 『1980년대 전반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의의와 한계』, 비평문학58, 2015, 125~152쪽.
- 이소희, 『일반논문 :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0, 2013., 221~319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47,

2016, 409~454쪽.

정민우, 「지식장의 구조변동과 대학원생의 계보학, 1980~2012」, 문화와사회15, 2013, 7~78쪽.

정중현,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 인하대한국학연구/36(-), 2015, 81~124쪽.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 (1) - 시대와 문학론의 "토픽"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56, 2014, 389~416쪽.

태혜숙, 「현대영미여성해방비평연구: 영문학비평의 객관성을 위하여」, 서울대박사논문, 1992, 42쪽.

허운,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28, 2012, 239~264쪽.

T. 데니언 샤플리-화이팅, 「과농의 페미니즘 의식과 알제리 여성해방: 식민주의, 민족주의, 근본주의」, 실천문학 2003 봄, 115~116쪽.

#### 4. 기타

김동식, 「잡지의 시대, 매체의 시대, 문학의 시대-1980년대 문학과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대신하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 233~236쪽.

## Abstract

Research on the meaning of the Women's Movement magazine and  
the Korean Literature Debate in 1980s

Lee, Sun-Ok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the women's literature debate in Korea in the 1980s on feminist mook, *Yösöng* (Women), *Tto hana ũi munhwa* (Another culture). It was analyzed under the theme of representation-experiential subject and the complexity of subject. When using woman as a single category, feminism will be in cahoots with the power of Nationalism. We have seen many historical facts to support this. The issues of the women's literature debate in the 1980s include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complexity of women, race, and class. This complexity of subject can cause a crack in the excess imagination of a single subject dreamed of by National-Popular Literature, and it is positioned to come into conflict with nationalism. The concept of complexity can develop into a collectivity subject, a cross-sidental concept, class, ethnic, race, sexuality, sexual orientation etc.. In that the complexity of the subject body was raised as an issue in earnest, the women's literature debate in the 1980s takes an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woman movement in the 1980s, women's literature, feminist mook,  
*Yösöng* (Women), *Tto hana ũi munhwa* (Another culture), Park Wanso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